

1999 겨울호

스물 셋

보관용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어느 덧 옷소매 사이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느껴집니다.
지난 한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천년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천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트 병중인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
트 요? 한번도 지면을 통해서 인사 드린 적이 없군요.
그 동안 후원회 사무국 일꾼들이 누군지 궁금하셨죠? 오늘 드디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일생명의 집을 이용하는 가족을
상담하고, 이용을 안내하며, 자원봉사자들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아픈 어린이들의 외래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 정민영입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박정자 간사로 후원회에
서 가장 중요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1
원도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멋있는 청년은 제일생명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김선국입니다. 현재 비호지킨림프종을 진

단받고 치료하고 있지요. 후원자님들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

별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우리

아픈 어린이들은 정말 사진찍기를 싫

어하거든요.)그 다음이 바로 접니다. 후

원회 살림을 총괄하고 있죠. 청소부터 예산

및 사업기획, 홈페이지 상담까지 안하는 게 없

습니다. 그 옆은 가발과 헌혈증을 지원하고 있고 각종

기금관련 행사를 담당하는 김영란 간사구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은 가족들을 상담하고, 수술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연결, 그리고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 회보와 교육용 책자를 편집하고 틈틈히

홈페이지도 관리하는 등 1인 3역 하고 있는 최지혜 사회복지사입

니다.

저희들은 매일 꿈을 꾸며 일을 합니다. 제일생명의 집에 아이들

이 너무 많아 불편해 할 때면 누군가의 기부금으로 여관건물을

하나 구입해 방별로 가족들을 배치하고, 1-2 층을 개조해 각종

프로그램실과 거실, 식당 등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꿈, 각 지역

별로 환아의 집을 만들어 한 명의 어린이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백혈병, 소아암에 걸려도 믿고 의지할 만

한 데가 많아서 힘은 들어도 돈 걱정이나 병에 대해 몰라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꿈, 후원자들께 하루라도
빨리 저희 소식을 알려드리고,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도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빨리 남자직원들도
함께 일해 여직원들이 더이상 힘쓰다 허리 다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것까지 매일 꿈을 꾸고 있지요.

하지만 가장 큰 꿈은 후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구요? 백혈병이나 소아암에 걸려도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고,
다른 건강한 어린이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후원회는 필요없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믿어주는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6,000여명에 달

하는 막강 후원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

니다. 후원자님들께서 계시기에 저희 후

원회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는 이 꿈들을 모두 이뤄보

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물론 저희 5명으로 1,000여명의 환자와 6,000여명의

후원자님의 기대를 충분히 채우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

다. 일일이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엔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빠 본의 아니게 섭섭하게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회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꼬박 2주일에 걸쳐 보내야만 하기에

유일한 매체인 회보마저도 자주 보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믿어주시는 가족 여러분과 후원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그 마음 이어주시기 바

랍니다.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업과장/사회복지사 김진숙 드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준영이에게

준영아!

생각나니? 3년 전 몹시 더웠던 그 여름을.
유난히도 핏기가 없고 식욕이 없던 네가 단지 더운 여름을 몹시 탄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기막힌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니?
세살도 안된 동생을 부산의 큰집으로 보내면서
우리 가족은 이산가족이 되어 견디기 힘든 너의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준영아!

기억나니? 처음으로 골수검사를 받던 그 날을.
검사를 마치고 나온 너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더구나.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정말로 목놓아 울었다.
싹뺨이 다 터져 몹시 창백했던 너의 얼굴은 온통 얼룩으로 변했고
온 몸은 진땀으로 범벅이 되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와 아빠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한창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에 병마와 싸우는 우리 준영이.
약먹기를 몹시 싫어해 코에 튜브까지 연결하며 약을 투여했던 그 많은 시간들.
척수검사하는 날이면 울부짖는 너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멀리 도망치며 가슴치던 날들.
정말 꿈만 같구나. 긴 터널 속을 헤맨 것 같기도 하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준영아!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모든 의료진 선생님과 병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늘 척수검사를 싫어하는 너지만
이 모든 치료과정이 우리 준영이가 건강하고 늙은 대장부로 커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번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엄마는 하루하루 마음속으로 빌고 있어.
우리 준영이도 함께 기도하자.

1999. 9. 5. 엄마가

*최준영 어린이는 현재 6세의 남자아이입니다.

97년 8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고 현재 이대동대문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식사관리 II - 민간요법의 허와 실 & 건강한 식생활

민간요법이란 '어느 병에 무엇을 써보았더니 좋았다'는 식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요법으로 대부분 옛날부터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간요법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치료방법이나 치료단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또는 "민간요법은 양약과는 달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처방하여 자칫 과량 섭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독성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민간요법으로 쓰이는 재료 중에는 식용 경험이 없는 재료도 있고 미량의 천연 유해성분을 함유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부패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의 안정성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평상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식품을 금기하는 경우가 있어 하루 섭취량이 감소되어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별 효과도 없는 민간요법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그 안정성이나 효능,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도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아주 무모한 모험이라 할 수 있겠다.

1. 상황버섯, 영지버섯, 아카리쿠스버섯, 느릅나무즙, 키토산, 스쿠알렌, 개소주, 한약 등

→ 항암치료 과정에서 이들 물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2. 비타민제 보충

→ 과일과 야채의 섭취가 충분하다면 필요 없다.

특히, 비타민 A, D, E 등의 지용성 비타민은 과량 섭취시에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된장, 김치, 버섯, 마늘, 푸른잎채소, 당근 등의 녹황색채소

→ 식사시에 반찬으로 먹되 조금 더 자주 먹으면서 다른 반찬과 균형을 맞추어 먹는다.

항암효과만을 생각하고 김치나 된장만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은 부족되고 짜게 먹게 되므로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4. 인삼, 홍차, 녹차

→ 만약 마신다면 식사사이에 물대신 마신다. 식사량이 적은 경우는 이런 차 종류를 많이 마시면 식사섭취량이 더 적게 되므로 식사부터 먼저 먹고 조금만 마신다.

다시 말해 항간에 암을 치료하는 식사요법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식품을 위주로 하는 극단적인 식사로는 치료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간에 떠도는 특정식품이나 식사요법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맹신으로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고 평상시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되,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식사요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급식영양과 위경애 영양사

5가지 기초식품군

영양소	역할	부족하면	많이 들어있는 식품
탄수화물	에너지원	체중감소	밥, 국수, 빵, 떡, 감자, 고구마
단백질	근육, 혈액, 호르몬, 항체의 구성성분	면역기능저하, 허약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조개류, 두부, 콩제, 우유, 치즈
지방	에너지원	체중감소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땅콩, 잣
비타민과 무기질	체내 유통작용	조절기능 저하	야채, 과일

◆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

1.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반찬은 골고루 먹는다.
 2. 매끼 단백질 반찬을 꼭, 충분히 먹는다.
 3. 채소반찬은 매끼 2가지 이상 충분히 먹는다.
 4. 과일은 하루 1~2번, 1가지 이상 먹는다.
 5. 우유 및 유제품을 하루 1개(200ml) 이상 마신다.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멸균 제품을 이용한다.)
 6. 소금, 고춧가루 등의 양념과 조미료는 적당히 사용하여 맵고 짜게 먹지 않는다.
 7. 국, 음료, 후식은 적당히 먹는다.
 8. 땅콩, 치즈, 빵, 떡 등 영양분이 있는 간식들은 식사사이에 조금씩 먹는다.
 9. 지방을 먹기 위해 식용유, 참기름 등의 기름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다.
볶음이나 나물을 만들 때 양념으로 사용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10. 영양적인 면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고 식욕을 돋구기 위해 다양한 식품을 사용한 일품요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 예) 김밥, 덮밥, 국수, 샌드위치, 땅콩버터나 잣을 바른 과자, 버터를 발라 구운 감자





충청도 양반

홍로씨는 내가 만난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랐다.
젊은 사람이 말수도 적고, 어쩌나 점잖던지...
말로만 듣던 충청도 양반 그 자체였다.

KCLF 어떻게 진단받게 되었고, 치료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홍 로 처음에는 감기인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빠지고, 마치 감기몸살에 걸린 것과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역시 감기라고 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어준 약만 먹으면 낫겠지하고 말이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기를 서너차례? 그러던 어느 날 새파랗게 질려있는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놀라서 도립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바로 입원부터 하자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서 하루밤을 보냈죠. 다음날 병원 측에서 피검사를 하더니 서울로 옮기자는 말과 함께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투병생활은 시작 되었습니다.

치료과정 중 척추검사, 골수검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에 따르는 육체적인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도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나았다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확실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하느냐 없느냐가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도 기쁜 마음으로 승낙할 수 있었어요. 완치된 제 모습이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KCLF 치료받는 동안 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생활 중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에 대한 자신만의 대처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홍 로 우선 머리가 빠진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다보니 아이들이 많이 놀리게 됩니다. 짚꿍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빼앗기도 하고요. 저는 치료받는 3년 동안 학교에서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쓰고 점심시간은 물론 조퇴시간에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그냥 이해를 해 주셨지만 모르는 분들은 저를 난처하게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퇴시간 중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웬지 주위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모두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저를 보고 모자를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아주 건방진 학생으로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는 저를 모르는 선생님, 학생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의 주위 사람들에게 꼭 아이의 상황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병을 숨기려 하지 말고 자꾸 알림으로서 주위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저 역시 친구들에게 제 사정을 얘기해주고, 제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해주었습니다. 우선 건강하지만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저의 도움을 청할 때는 거절하지 않고 뭐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도 제게 신임을 갖고 절 보호해 주려고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지고 공부도 잘 되었습니다.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지요.

이 홍 로

1976년 생

1988년 7월 1일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1991년 9월 치료종결

현 재 충남대학교 공대 컴퓨터과학과 4학년 휴학 중

KCLF 발병 전 공부를 잘 하셨다면요? 치료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

홍 로 전 집이 서울이 아닌 지방이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서울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동안 서울에 머물러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업은 빠지게 되고, 치료받은 다음날은 거의 약에 취해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에게 노트를 빌려서 빠진 날의 필기를 열심히 해줬죠. 그랬더니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특별하게 과외나 학원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 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대해 그리 강요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공부는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보거든요. 그리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KCLF 사춘기에 아프셨는데 외모상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홍 로 외모상의 변화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머리 빠지는 문제이죠. 하지만 외모에 민감한 시기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 외모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치료과정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치료에만 매달렸지요. 저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 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주위 친구들에게도 제 병명을 말해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니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당시에는 안 자라면 어떡하나 하고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꼭 참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아주 값진 선물이 기다릴 테니 말이죠.

둘째로 이가 약해집니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다보니 입안이 헐 때가 많아지죠. 그러다보면 양치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치아가 많이 상하게 되죠. 그럴 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고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치료과정 중 관리를 잘못된 것이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KCLF 투병생활의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홍 로 현재 학교에서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동아리에 가입해서 시작한 것이지요. 운동을 배우면서 선배님들로부터 유난히 끈기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우선 몸이 약하니까 운동을 해서 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시절 치료가 끝나고, 특별히 운동할 기회가 없었던 저로서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했죠. 지금은 학내 "교수님 검도 동우회"의 사범을 맡고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내가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검도를 시작할 엄두나 났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저는 투병생활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끈기를



배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KCLF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홍 로 어릴 적부터 컴퓨터게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치료받을 때, 부모님께서 치료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잊으라고 제게 게임기를 하나 사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손으로 게임을 만들어봐야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컴퓨터과학을 선택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것입니다.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니 말이죠.

현재는 우연한 기회에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에서 추진 중인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의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공부할 방향도 같고 해서 과감히 휴학을 하고 지금 프로젝트 수행 중입니다.

KCLF 장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홍 로 투병 중 병원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 할 것이고 대학원도 갈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외국에 나가 학위를 받고 올 생각입니다. 교수가 목표거든요. 꼭 해내고말 겁니다.

KCLF 현재 투병중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홍 로 첫째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꼭 참아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치료받을 때 만해도 약이 방금 개발되어 써 보던 시기여서 완치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완치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완치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완쾌가 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팠던 과거 때문에 덕을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둘째로,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아프고, 치료과정이 힘들어서 부모님께 짜증을 부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 더 아프거든요. 아파도 꼭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로,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있거나 하지 말아요. 나가서 아이들하고 노세요. 운동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 보세요. 저는 집 뒷산에 자주 올라갔었거든요. 사람들하고 함께 등산 길도 걷다보니 기분이 나아지더라구요.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하세요. 남들보다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은 훨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쌓고 있는 중이니깐요.



-캠프에서 어린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

백혈병어린이 후원회에서의 추억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실습생 석세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재학

교회후배인 진경이를 통해 백혈병어린이 후원회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고, 곧 이어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매주마다 조용하고 깔끔하며 아담한 후원회 사무실에서 나는 후원자관리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에 늦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9시 30분까지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보람을 주기도 하지만 피곤할 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아침에 있었던 잠과의 싸움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후원회에서 타주는 커피가 익숙해 질 때쯤 사회사업 전공실습을 어디서 해야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후원회에서 실습을 하며 자원봉사 지도자 역할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다.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실습준비가 덜 된 나에게 실습은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여러가지 실습과 관련한 전공서적을 찾아보았고 나름대로 실습을 진지하게 해보려 노력하고 준비했다. 7월 5일부터 후원회에서의 실습이 시작되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동료 실습생 현순이와 사회복지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부터 짜여진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나는 걱정이 되었다. 자신이 없어졌었다. 앞으로 한달이나 남았는데... ' 의기소침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화이

팅을 외쳤다. 이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과장님은 "실습기간동안 자신을 이해하는-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나에게 맞는 대상과 서비스기관의 색깔을 발견하는 것 등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며 훌륭한 사회복지사는 자기 통찰을 잘 하는 사람이다. 또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다." 라며 지지와 격려를 해 주셨다. 과장님과 여러 후원회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간사님들 덕분에 나는 한 달의 실습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실습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게 되었고, 너무도 좋은 선생님들과 만나고, 짜임새있는 교육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싶다.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백혈병어린이후원회는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금 모금과 프로포절 작성으로 다른 기관에서 잘 발휘하지 못하는 창의적이고 부지런한 일들을 하시고, 보여주셨다.



실습기간동안 나는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하고 책자발간을 돕기도 하였으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족 캠프에 참여한 일이다. 온가족이 참여한 가족 캠프라서 더욱 뜻깊은 캠프가 된 것 같았다. 나는 5세부터 7세의 환아들이 있는 돌리네반을 완치자인 서재선씨와 함께 담당하였다. 우기로 인해 날씨는 좋지 않았으나 우리가 캠프를 하려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밤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곡 물이 넘쳐 후원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새 짐을 챙기고 피할 준비를 하였다. 모두들 서로를 위하여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후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완치자들과의 자원봉사교육을 통하여 만나고 그들과 함께 캠프

를 진행하였던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순수함과 함

께 강인함이 깃들여져 있는 모습... 그들은 환아 가족들과 후원회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다.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여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는 푸른 우리 마을 가족캠프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나는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푸른 우리교실을 6개월 동안 담당하였다.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수강생들과 10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일들은 나에게 캠프만큼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 푸른우리교실을 통하여 치료받는 아이들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서 순수한 즐거움을 맛보았다. 함께 봉사하였던 이정은, 김영신, 황장성, 김재훈, 윤훈씨가 너무도 열심히 매주 아이들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감정에 동참하고 아이들의 눈 높이를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어서 지도자로서의 내 마음을 더욱 보람있고 겸손하게 해주었다.

앞으로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하는 후원회가 하루 빨리 법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분야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발전하는 후원회의 모습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발전해 나가는 후원회를 더욱 기대하게 된다.

사랑이 모이는 곳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회사인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11월 3일 후원회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후원회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김영찬(서울대병원), 라재길(영남대병원), 정지혜(전남대병원) 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하였다. 또한 12월 4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 밀레니엄 콘서트에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 100명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특히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어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두산타워와 함께 한 Love Love 페스티벌!

동대문의 대형 패션상가 두산타워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Love Love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헌혈증 모으기, 일일호프, 모금함 설치 등의 행사를 해 마련된 후원금과 헌혈증을 후원회에 전달하였다. 전달된 후원금은 2명의 어린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 한양대병원과 이대동대문병원에 캐릭터 인형들이 방문해 입원한 어린이들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모양 풍선을 만들어 주었다.



후원회와 함께 하는 사이버 세상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도 얼마든지 후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후원회와 함께 사이버 속 후원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1. 나누기(맑은자리 커뮤니케이션) www.naugi.co.kr
2. THE GOOD((주)디지털 오프) www.thegood.co.kr

THE GOOD 참여 후원자(12.1~12.17)

임현재, 김운선, 홍경석, 이수혜, 성민주, 윤은진, 박원곤, 이지원, 김현정, 전해성

자전거 바퀴 속의 사랑

1. 한국방송통신대 총학생회는 '지구 환경 살리기를 위한 자전거 대중주'를 하면서 후원회의 수술비 지원 기금 마련사업인 "천사백운동"을 전국 각지에 홍보하고, 헌혈증을 모아 12월 9일 후원회에 전달하였다.
2. 서정진씨는 자전거로 국토 대순례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아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선희(서울대병원)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서정진씨의 사연은 경향신문과 기독교방송에 소개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

삼성SDS 푸른마을 봉사클럽은 10월 15일 서울대병원 병원학교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컴퓨터 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참가한 어린이들



은 모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어린이들의 홈페이지는 후원회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소책자 발간

후원회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교사용 소책자 "소아암 학생 지도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소아암 학생 지도 가이드"는 소아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소아암에 대한 정보와 학교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가 실려있다. 후원회는 우선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의 담임 교사, 체육 교사, 양호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책자도 99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작되었고, 모든 책자는 무료로 배부된다.



문의 및 신청: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02-766-7671~2)

토막소식

1. 유통업체 코렉스 마트는 12월 17일부터 31일 까지 '백혈병 어린이돕기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각 지점에서 개최해 모인 동전은 모두 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 극단 송도말년 불가살이에서는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극장에서 "마른 꽃잎"을 공연한 뒤, 연극 및 캐릭터 상품 판매 수익금을 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3. (주)레고 코리아(사장 이윤하)는 후원회에 어린이 완구 500개를 기증해 주었다. 후원회에서는 이 완구들을 경희의료원 외 10개 병원 부모모임에서 주최하는 송년(완치)잔치 선물로 모두 전달하였다.
4. 제일생명의 집(후원회가 운영하는 지방환아 숙박시설)에서는 제일생명 직원들이 방문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



◆한뜻후원자 소식

감사드립니다.한뜻후원자 신규(99.12.15현재)

김성은 김연주 김현욱 김현준 노은주 박병표 박용준 박지언 박진현 박진홍 박혜진 방진숙 서기성 손민아
 송민규 심귀순 심미영 안병일 오경환 이기정 이유정 이일임 이지영 이혜숙 이혜진 정진선 정창민 조선영
 조진만 조현곤 최영식 최윤영 한빛네트 홍경란

한뜻 후원자는 소아암어린이들을위한 정서·정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금액은 제한 없으며 지로와 자동이체(국민,조흥,기업은행)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후원회 사무국에서 받습니다. (☎ 02 766-7671)

※ 한뜻소식란에 실을 한뜻후원자님들의 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시 등 형식 및 소재 자유)

절망속에서 핀 희망

한뜻회원 No.123 박병표

막상 치료받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해줄 말도 쓸 말도 많았는데 글을 쓰려고 펜을 든 순간 무슨 말부터 무슨 글부터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절망은 제가 느껴보았던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절망보다 강하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글을 쓴다고 감히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께 감히 '희망' 이라는 것에 대해, '희망이 있는 믿음' 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벌써 3시간 넘게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기자를 사랑하게 된 그녀는 오늘도 약속장소에 늦게 오는 그 남자를 원망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상 기다릴때면 화장을 고치는 그녀는 어느새 진해져 버린 거울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만, 그녀가 짐을 챙겨 그 자리를 뜨려고 할때 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남자를 보며 그녀는 그래도 조금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았지만, 바쁜 일이 있어 이내 들어가 봐야 한다는, 나중에 연락한다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내 친구가 있었지요. 그 친구가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이에요. 기약없는 기다림이 내 친구는 아주 싫다고 해요. 나도 그래요.' 그 여자의 말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문사 사람들이 다 그런가봐. 결혼한 선배도 집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다 정말 헤어지는 선배들도 많고 노총각들도 많고 말이야. 그래도 한가지만 믿어줘. 내가 아무리 늦어도 꼭 나온다는 거. 꼭 온다는거 그것만 믿어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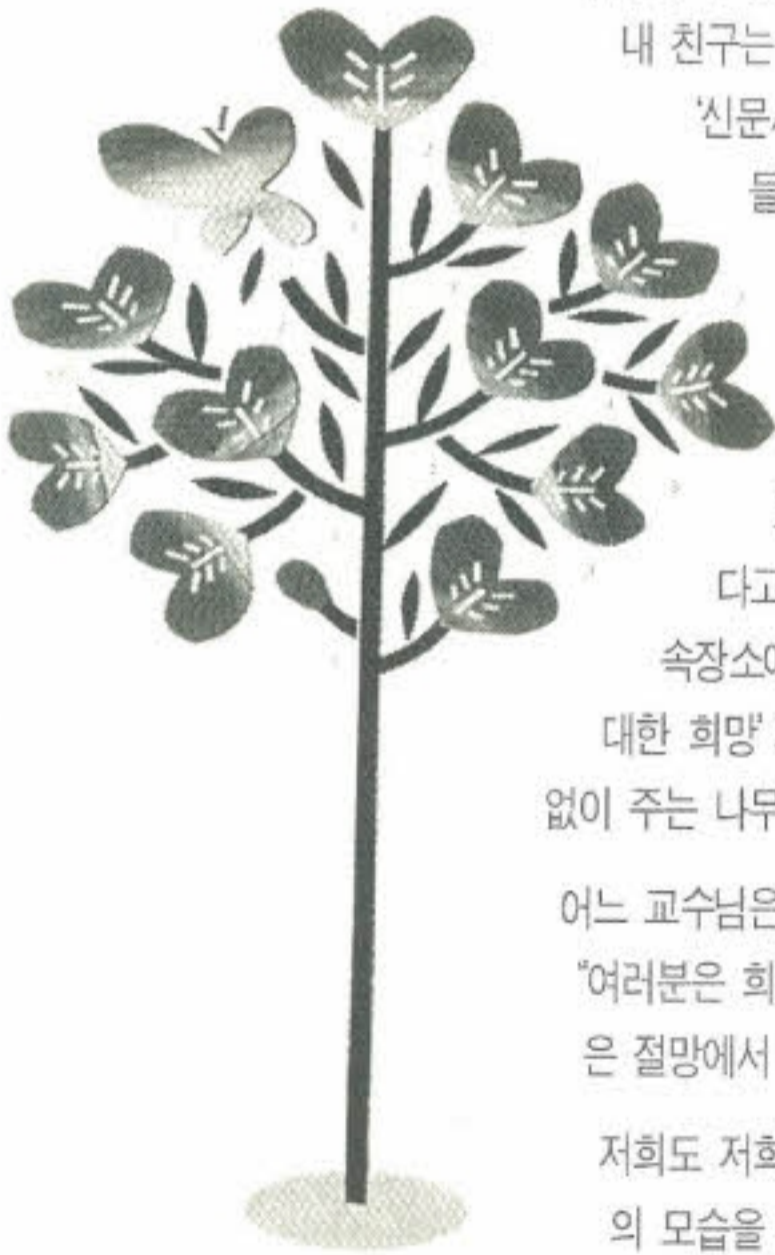
그 남자를 사랑하니깐요.

늦어도 꼭 온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여자의 희망적인 믿음이나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희망의 믿음' 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 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위 글에선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약속장소에 나올 것이라는 걸 믿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삶에 대한 희망' 과 '회복에 대한 희망' 과 '치료에 대한 희망' 을 지킬수 있게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하는 어느 소설 속의 "아낌 없이 주는 나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은 희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나? 희망? 희망이 희망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절망이야. 희망은 절망에서 나오지. 그래서 희망일 수 있어."

저희도 저희 삶에 대한 희망이 약해질 때 열심히 곳곳하게 '절망이 주는 희망' 속에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결코 약해지지 않는 저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사백운동 지원 환자 천사백후원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고지형(남)

생년월일: 1993. 4. 21.
진 단 명: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 단 일: 1997. 4.
치료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지형이는 제대혈 이식을 받고 현재 회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형이가 빨리 회복되어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구나!



박준수 (남)

생년월일: 1995. 6. 17.
진 단 명: 급성골수성백혈병
진 단 일: 1999. 3. 11.
치료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준수는 동생으로부터 골수를 기증받아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려운 고비도 있었으나 무사히 넘기고 퇴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정민 (남)

생년월일: 1995. 4. 26.
진 단 명: 신경모세포종
진 단 일: 1998. 12.
치료병원: 강동성심병원
정민이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면역치료 중입니다. 정민이와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정민이 아버지는 천사백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천사백 회원들의 사랑이 또하나의 사랑으로 거듭납니다.



황인예 (여)

생년월일: 1996. 10. 12.
진 단 명: 신경모세포종
진 단 일: 1999. 3. 2.
치료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인예는 항암치료 및 각종 치료를 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진 속의 인예는 작은 체구지만 곳곳하게 견뎌내리라 생각합니다.



김만석(남)

생년월일: 1997. 5. 15.
진 단 명: 연소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진 단 일: 1999. 5. 3.
치료병원: 삼성서울병원
만석이는 10월 아빠로부터 골수를 기증받아 이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이식을 받아야 하나 만석이 가족은 지금껏 그랬듯이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만석이 가족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최진주 (여)

생년월일: 1996. 8. 2.
진 단 명: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 단 일: 1999. 4. 26.
치료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진주는 현재 제대혈 이식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주는 다리에 힘이 없다며 힘들어 하고 있으나, 잘 견뎌내리라 믿습니다. 진주야, 힘내!



주상은 (여)

생년월일: 1997. 7. 30.
진 단 명: 급성골수성백혈병
진 단 일: 1998. 12.
치료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상은이는 이식을 마치고 경과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상은이에게 기쁜 소식만이 가득하길!!!



김재훈 (남)

생년월일: 1996. 10. 17.
진 단 명: 신경모세포종
진 단 일: 1999. 6. 9.
치료병원: 이대동대문병원
재훈이는 조혈모세포를 모아놓고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말 이식을 시행할 예정이니 재훈이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천사백운동은 소아암어린이를 돕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 친구와 이웃도 천사로 !!!

혼자만 천사라는 사실이 외롭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천사라는 사실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제 후원회는 10,000명의 천사와 만나려고 합니다.

옛말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행을 감추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일 리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을 지키는 천사라는 사실을 방방곡곡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천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새 천년 더 많은 천사와 만나는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의 모습이 밝으리라 믿습니다.

천사와 편지하고 싶은 친구 없나요?

천사백회원 도경녀

회보를 받아보니 한가족이라는 맘이 들었어요. 큰 피해의식 속에 살아온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두서도 없고, 간결하거나 매끄러운 글은 아니지만 편지쓰길 좋아하니깐 우리 이쁜 아이들 중에 저와 함께 편지쓰길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나요?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몸 건강히 감기 조심하세요.

* 도경녀 회원님과 함께 편지를 나눌 친구들이 있으면 후원회로 연락을 주세요. (02-766-7671)

서울동일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이 천사가 된 이야기

6학년 2반 학생들이 돈을 모으게 된 계기는 이렇다.

1학기 말에 학예회 대신 바자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학급 회의를 열어 토의를 했다. 만강일치로 바자회를 하자고 결정되어 우리는 여러가지 메뉴를 정해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여러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고 음식물 만들어 오셨다. 이렇게 여러사람의 참여 속에 우리는 무려 265,000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 보내 천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반에 동희윤과 황재현이 알아보기로 했다. 그후 동희윤이 인터넷에서 여러 재단단체를 찾았다. 처음엔 영아원에 직접 찾아가서 도와 주고 돈도 기증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되서 투표를 해서 통장에 입금시키는 안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를 택했다. 그후 은행에 이거를 불러서 10월 17일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 후원회의 꼬마 천사가 되는 방법 ♥

1.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으면 당장 후원회에 전화를 걸어 천사백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런 뒤 은행을 방문해 계좌간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OK!!
2. 통장이 없으면 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후원회에 지로를 요청한다.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1999. 11. 30 현재)

자동이체 참여후원자: 3,836명
 자동이체 구좌 수: 11,973구좌

*온라인 일시입금 및 지로구좌는 제외된 현황입니다.

*주소 또는 은행, 구좌수가 변경되신 후원자께서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99. 9. 1. ~ 99. 11. 30.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경남은행(514-07-0175564 예금주: 백혈병어린이후원회→타은행도 동일)
 배영선

광주은행(200-107-315315)

김정미 김진 이미향 조규영 조영재 황애자

국민은행(031-01-0414-356)

강창선	김은자	김정미	김철곤	문정민	문정인
민태희	민홍열	박관학	배지연	서대원	신현경
양혜옥	유영민	이미현	이미혜	이수동	
일심회	장용환	임시현	정구봉	정진준	정하영
조문숙	조병남	차지연	최의석	최주환	최한영
한윤조	한정현				

기업은행(090-000260-04-022)

김병희 김종완 김진 박민조 오용환 이승춘
 진승림 한덕규

농협(029-01-170940)

김승현	김정숙	김준태	김효진	문종하	박명순
박진현	배덕한	서형원	손희정	오재민	오정화
우정민	이종규	임경화	정정희	조태영	조충묵
지윤성	최은석	최재익			

대구은행(004-05-179828-001)

김기산	김봉소	김영숙	김정숙	김현주	손정임
송현주	여운옥	이혜진	임영희	전은정	정은숙
최영아	피선형	한윤경			

부산은행(070-01-021379-8)

성제숙 박경순 봉돌 김양희 정은영

서울은행(16508-2945601)

윤현애 이상기 조미선

신한은행(394-01-000694)

김연희 김옥선 김정배 우정순 윤혜진 정승원
 최미영

외환은행(141-22-00799-6)

강다운 강아름 이종빈 진병화

제일은행(225-20-385050)

대구또래 명경민 이종현 이현미 조희경 제일은행광명

조흥은행(367-01-192434)

김성희 김종애 박재현 신사임 여연승 이상덕
 장문선 홍은하

주택은행(488401-01-001485)

강해경	권은주	길영진	김낙석	김상영	김주현
마일심	박경철	윤용식	이경민	허은숙	
황은숙	황호신				

축협(043-11-13275-816)

신재준 이종분 하경희

하나은행(144-121835-00105)

나학주

한미은행(100-59711-251)

김구철 이이종 인명철

한빛은행(112-04-112571)

* 이전 한일은행 계좌는 기존에 신청하신 후원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욱	김행완	김현철	박경아	박기범	박병훈
박인호	박치성	배상태	유춘희	이민휘	이보영
이운현	이응재	이종선	이태수	정부다	정창용
조미향	조천호	조혜란	최윤정	한상희	

우체국(012989-0037222)

고정란 김주영 박기만 박대식 송정용
 이태훈 임호빈 순복음제일교회
 영주초등학교 4학년 이명범



사랑의 모음터

◆사랑의 헌혈증서

김명호(2) 김미옥(5) 김지희(4) 김혜연(43) 대한항공연합 신우회(18)
 두산타워 행사(319) 류우상(5) 무명(3) 양효정(1)
 이승춘(1) 정소희(32) 하혜진 환아(115) 한국방송통신대 총학생회(139)

◆특별 후원금

9월 파마시아&업존 1,380,000 전덕순 고문 700,000
 송상현 회장님 1,000,000 청담회 200,000
 11월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15,639,000 김현규 126,000
 동일초등학교(6-2) 265,000 두산타워 기금모금 10,000,000
 둔기선교회 430,000 대한항공연합 신우회 100,000
 12월 사직로터리클럽 60,000 전남대학병원 병원장 강삼석 外 1,000,000

◆후원물품

김용희 책(3) 삼성SDS 컴퓨터(1) 송해은 고추장(4병)
 추연화 부모 쌀(1가마) (주)레고 코리아 어린이 완구(500개) 김우영 모 김치
 사랑터(봉사모임)에서는 제일생명의 집에 머무르는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매월
 식료품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물품 후원 안내

후원회는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후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
 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가 후원회에 큰 도
 움이 됩니다.

▷ 제일생명의집 : 세제, 비누, 치약, 휴지, 고춧가루, 왕소금, 각종 조미료
 아동용 교육비디오 및 도서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 겨울호는
 스미스클라인 비참 코리아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안효섭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3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766-7671) 푸른우리마을(경기도 연천, 0355-8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